여러분이 마음을 마음으로 조작하지 않는다면 모든 게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 17면에서 계속

때문에 물질만 보면 사족을 못 쓰고, 물질이라면 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돈을 벌어야만 하고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모든 것을 욕심을 내서 끼어야만 하고 가져야만 하고 먹어야만 하고 써야만 하고 자기 걸 만들어야만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앞을 가려서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를 형성시킨, 자기를 이날까지 진화시켜서 끌고 나온 그 주인의 참 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자불 노승을, 즉 말하자면 자기 나오기 이전 자기 자불 노승을 몰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테면 자기 부모를 모를세라 하고 나만 먹고살면 된다는 뜻이죠. 그런 거나 똑같이, 비유하건대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이거는 각자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의, 그 자기의 스승이며 자기의 아비며 자기의 주인인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주인에 의해서 제자인 것이요, 자기 주인에 의해서, 불가로 치면 시자인 것이요, 또 기독교에서 말하면 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종이 어떻게 해서 자기의 그 자불 노승하고 둘이 아니어야 하는가? 가만히 차가 굴러가는 걸 보고 마차가 굴러가는 걸 보십시오. 옛날에는 마차가 다녔기 때문에 마차로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은 차로 비유를 해도 됩니다. 만약에 심봉이 양쪽에 꽂히지 않았다면 절대 바퀴가 올바르게 굴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심봉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자기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그 지배자인 한 신입니다.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 불성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처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 부처가 있으니 각자 누구나가 바깥에 끄달리지 말고 바깥에서 찾지 말고 바깥에서 원하지 말라. 안에서, 바로 자가발전소와 같고 원자력이나 마찬가지니까 거기에서 구하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것을 거기에서 찾고, 거기에서 감사하고, 거기에서 물러나지 말고, 거기에서 모든 해결을 하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기의 참맛을 알며, 모든 사람의 생명과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보람을 줄 수 있는 그런 바로 길잡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신의 노예인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자유스럽게 산다고 하지마는 자기가 묶여 있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이치에서 한 발 한 발 딛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는 데마다 창살 없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것을 안다면, 창살 없는 감옥에서 훌쩍 벗어난다면 바로 자기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컴퓨터나 로보트나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노예로 삼아 쓰고 있습니다. 안 그럴까요? 일체가 인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어디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로보트를 만들어 놓았지만 그 로보트의 정신력이나 이런 것이 자기가 생각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고등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항상 내가 말했죠. 새로이 새 언어로 얘기를 해 보면, 오신통을 컴퓨터니…, 항상 얘기하죠. 여기 안 들은 분이 있으면 들으시라고 다시 재차 얘기를 하건대 우리가 자유스럽게, 영원한 자기의 주인공에 의해서 스스로 있는, 영원히 있는 그러한 망원경이나 컴퓨터나 탐지기나 또는 천체무전통신기나 책정기나 또는 영사기 이런 것이 자기한테 그냥 본래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원력이 동시에 있는, 이 굴레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이치가, 바로 그런 능력이 스스로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물체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쓰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떡하면 인간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하게 할 수 있나 하고 그 의식을 통해서 자꾸 만들어 냅니다. 만들어 내되 만들어 내면 만들어 내는 대로, 예를 들어서 수십 개를 만들어 놨는데 어떤 거는 특별히 자기가 생각하는 것도, 의식으로 통하는 것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도 너와 같아.' 하되 그것이 사랑과 의리 그런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냥 곧바로 나가는 거, 한번 치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것대로 막 치고 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그 만들어 놓은 데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자체에 죽고 산다 하는 것은 자유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만들어 놓고도 항상 그걸 둘로 보지 않게끔 사용을 한다면 절대로 망하는 수도 없고 또 모든 것을 흥하게 만들기 때문에 공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로보트를 만들든지 뭐를 만들든지 그 상대성 원리가 바로 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고 그러는 것도 둘이 아니지마는 여러분의 자성과 지금 심봉과 굴레바퀴가 둘이 아닌 까닭에 우리가 그 모두를 만들고 써도, 지금 세계적으로다가 어떠한 것을 한번 누르면 이 세상이 다 타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도 사람의 마음의 조작이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역시 인간의 마음 한생각이면 좌우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좌우할 수 있는 자유권을 가졌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자리를 지킬 수도 있고 융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데 그 오신통의 문제만 가져도 우리가 한생각을 내서 대의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또는 앞으로 세계적으로도 어떠한 나라가 독재적인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쁜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을 조절시켜서 다 이 세상이 평화스럽게 될 수 있는, 좀 다져 줄 수 있는, 요량 있고 지혜 있고 그렇게 조금 유동성이 있게끔 공산주의도 좀 더 융화를 시키고 반체계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비슷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를 세워서, 그 해이하고 약한 마음을 버리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쪽은 또 너무 센 거는 조금 줄이고 우리는 조금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합류화시킬 수 있다면 앞으로 이 자리가, 호국 불교가 따로 있고 호국 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한생각이 세계를 살릴 수도 있고 모든 생명들을 융화시킬 수도 있고 참답게 인간의 노릇을 할 수 있게끔 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생각이 세계를 살릴 수도 있고
모든 생명들을 융화시킬 수도 있고
참답게 인간의 노릇을 할 수 있게끔
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청소년들을 기르면서도 얼마나 타격을 받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둘로 보지 않고 나의 원자력 에너지가 있으면 에너지가 있는 대로, 내 전화가 있으면 내 전화에서 돌리면 바로 걔한테도 갑니다. 그럼으로써 말없이, 듣기 싫은 소리 하지 않고도 그 애를 잘 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게 인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은 사랑을 받게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좀 더 가난치 않게 할 수 있고, 괴로운 사람은 괴로움이 없어지고, 또 팔자 운명이, 그런 것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팔자 운명을, 자기네들이 마음으로 지어 놓고 팔자 운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자 운명이라는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약하고 또 비약적으로만 나가고 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만 하고 이렇게 생각만 하고 살아야만, 언제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만 살아야 합니까?

항상 내가 얘기해 드리죠. 절간에 가서 칠성이다 산신이다 용왕이다 이렇게 붙여 놓은 이름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는 엄마가 됐다가도 때에 따라서는 아내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누이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동생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며느리가 되고,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이름을 고정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 이름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한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많아도,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살아가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 그 작용을 하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마음에서 천만 가지 만만 가지, 아니 일체 만법을 다 들이고 내는 것이, 바로 우리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한마음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을 잘 쓰면 잘될 것이고 잘못 쓰면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남의 말만 그렇게 잘 듣고 나가지 마십시오. 왜냐? 남의 말을 듣는 것도 옳은 말이라면 자기 거를 만들어서 양식을 삼고 또 옳은 말이 아니라면 바로 떨쳐 버리는 그러한 마음과 더불어 내 마음의 주인공에 의해서 믿고 그렇게, 도도하게 흐르는 물처럼 항상 순조롭게 나가면서, 겸손하게 나가면서, 남의 생명을 아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생명과 똑같이, 하다못해 올챙이의 생명이라도, 바로 나도 과거에 올챙이였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애당초부터 사람으로 등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모두가 과거의 나인 것이고 미래의 나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았다면 바로 내일도 이렇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오늘이나 어저께가 둘이 아니요, 오늘 자체가 영원한 것이니까 오늘 이렇게 몸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그 도리를 모른다면 항상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신에 의해서 항상 지배를 받게 되니 그 지배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마음을 마음으로 조작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지 마음으로 조작하지 않는다면 모든 게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 이런 공부를 하나?' 이런 것도 좀 거기다 맡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빨리 해야지.' 하는 것도 거기다 맡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것도 거기에서, '되는 거, 안 되는 것을 거기에서 관장하고 열쇠와 자물쇠를 다 가졌으니까 거기에서 하시겠지.' 이렇게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과 물러서지 않는다면, 감사함이 있다면 모든 게 감사한 겁니다. (중략)

또 자기가 이 몸을 벗는다고 그래서 허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전에도 재차 얘기했지만 이것은 옷을 벗고 진화하는 거지 그건 죽는 게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 몸도 허무한 게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32상이 구족하고 62견이 구족하고 80종호가 구족하다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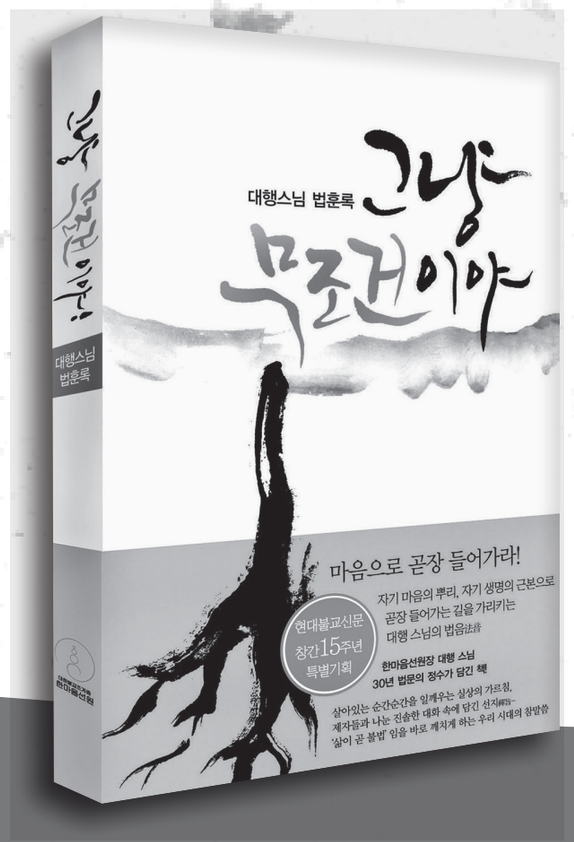
그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인간까지 돼 올라온 것도 조그마한 미생물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이라 하면 부처 될 수 있는 가망이 90%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선장이라면 잘 끌고 나가셔야 이 몸뚱이에 있는 중생들도 잘 끌고 나가게 돼서 몸이 건강하고 이렇게 가정이 건강하고, 좀 폭이 넓어지니까 모든 우환, 가환, 병고 액난이 다 무촉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가지고서 그냥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하고 얻다가 빌어야만 하겠습니까? 얻다가 빌 데가 없습니다. 자기가 있고서 이 세상이 났고, 자기가 있고서 상대가 있었고, 자기가 있고서 자식이 있었고, 자기가 있고서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빼놓고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딴 데서 물질적으로 발전소를 만들어 놓는 거는, 때에 따라서 전기가 나가면 전깃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자가발전소는 아무리 전기가 꺼졌다 하더라도 항상, 바로 불을 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밝습니다. 저 태양과 같이 밝으면서도 이 마음의 밝음은 땅속까지도 밝혀 줄 수 있는 뜻이 있습니다. 온 천하의, 온 세계의 어떠한 중생들이라도 다 밝혀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여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6년 7월 19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mahamall.co.kr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